

AI 시대, 도서/관의 힘

- 이시카와 현립도서관의 사례

2026.9.18.
일본학과 이지원

차례

0. 발표의 소회 및 일본 여행 보고

1. 주제 선정의 동기
2. 사례 선정의 동기
3. 영상 시청
4. 기본적인 특징과 관련 연구들
5. 제가 주목하는 특징
6.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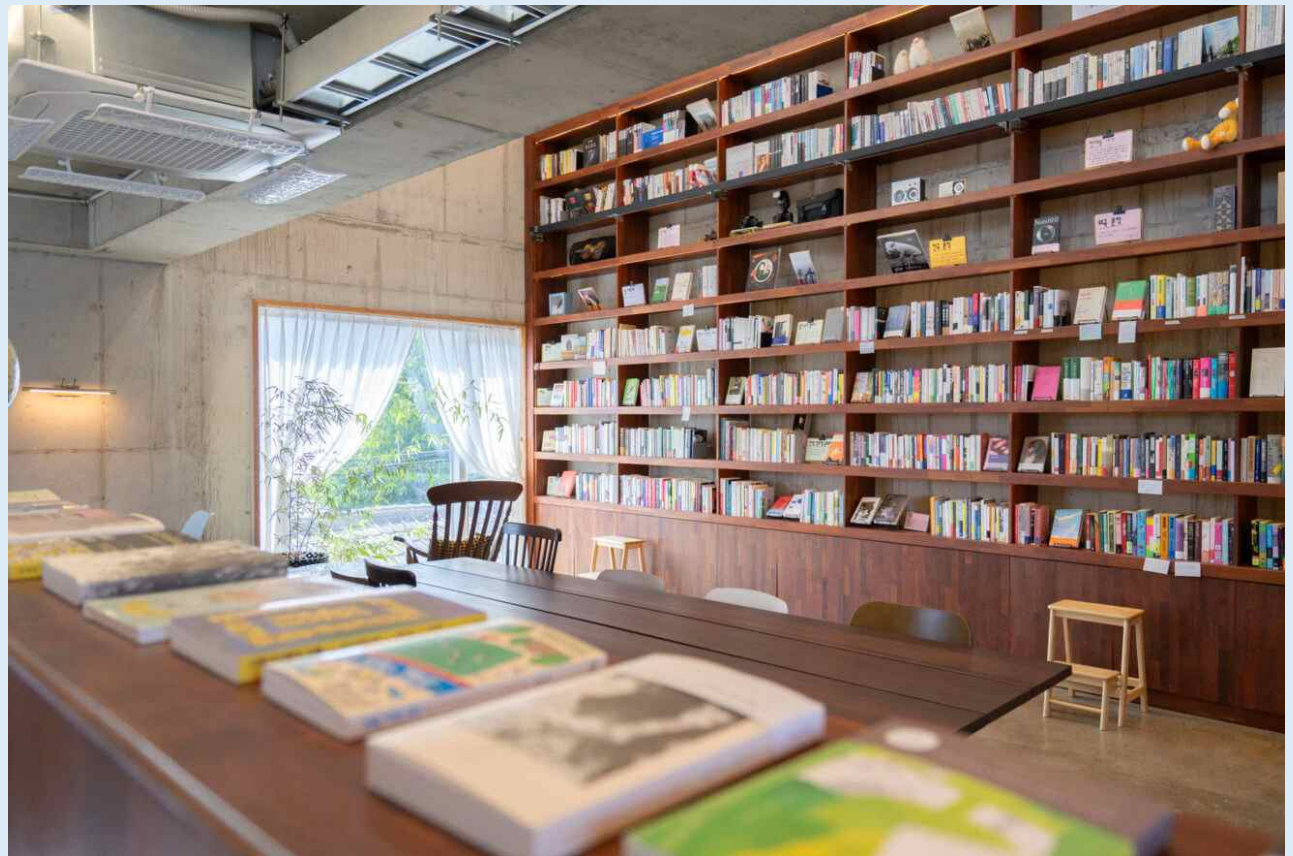
일본 탐방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주제 선정의 동기

1) 책/도서관으로 한 이유



주제 선정의 동기

"도서관의 합은 인류의 기억의 합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적 존재입니다.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기억 없이는 미래를 건설하거나 설계할 수 없습니다."

- 움베르트 에코 -

- 지방소멸

주제 선정의 동기

2) AI와 도서/관

3) 춘천 '책의 도시' 선정, 독서관광 육성

인간이 해야할 것 혹은 AI가 못하는 것

1) 판단력, 창의력

2) 기초지력(기본적인 교양과 지식,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 및
윤리의식(공동선, 사리분별)

3) 창의력, 상상력 배양 : 뇌 안의 스파크, 상상을 통한 기발한 연결(유레카 모멘트)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유하고 상상하는 훈련 = 뇌 근육 키우기
= 독서는 가장 대표적인 통로/수단 (not TV, 스마트폰)

또 하나, 멍때리기

- 과거에는 시간 낭비하는 무기력한 행위로 치부,
현대에 이르러서는 뇌의 과부하를 막고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필수적인 휴식메커니즘으로 재평가.
- AI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실은 제도교육에서도 못하는 것

멍때리기

내용을 입

1. 뇌과학적 관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MN)'의 활성화

뇌과학에서 멍때리기는 뇌가 활동을 멈춘 상태가 아니라, **내부적인 정리와 회복을 시작하는 능동적인 상태**입니다.  서울시립대신문 +1

-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MN) 가동**: 사람이 특정 작업에 집중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부위 조직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MN)**라고 합니다. 멍때리기는 이 DMN을 켜는 핵심 스위치입니다.  감사나눔신문 +1
- **단기 기억의 장기 기억 전환**: 외부 정보 입력을 차단하면, 해마가 그동안 쌓인 단기 기억들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장기 기억 저장소로 보냅니다. 즉, 학습과 경험이 진짜 '내 지식'이 되는 시간입니다.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창의적 통찰력(유레카 모먼트) 유발**: 강박적인 집중 상태에서는 연계되지 않던 뇌의 서로 다른 영역들이 멍때리는 동안 자유롭게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연결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YouTube · YTN 사이언스 +2
- **뇌의 노폐물 청소 및 회복**: 뇌는 몸무게의 3%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멍때리기는 과열된 전전두엽의 전원을 잠시 끄고, 뇌 세포의 피로를 완화하며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YTN 사이언스 · YTN 사... +2

멍때리기

2. 인문사회과학적 관점: 과잉 연결 사회에서의 '자기 서사' 회복

인문사회과학 관점에서 멍때리기는 속도전과 무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들이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자 치유의 수단입니다.

- **자아 성찰과 자기 서사(Autobiographical Memory)의 구축:** DMN은 자전적 기억과 자아 성찰을 담당합니다. 외부의 요구에 답하기를 멈추고 멍해질 때,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감사나눔신문 +2
- **피로사회와 소외에 대한 저항:** 철학자 한병철이 지적했듯 현대인은 스스로를 착취하는 '피로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성과주의와 숏폼 콘텐츠 등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멍때리기는, 효율성만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적 시간관에 대한 부드러운 거부이자 능동적인 쉼표입니다.  블로그 +1
- **정서적 이완과 사회적 공감 능력 향상:** 멍때리기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망하는 능력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내면의 스트레스와 감정적 잔여물이 비워지면서 심리적 공간이 생겨나고, 결과적으로 타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여유와 유연성이 생깁니다.  중앙일보 +2

AI 시대, 인문교육의 갈 길 ?

- 앞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
- 제도교육의 한계 ?
- 말을 물가로 데려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

사례 선정의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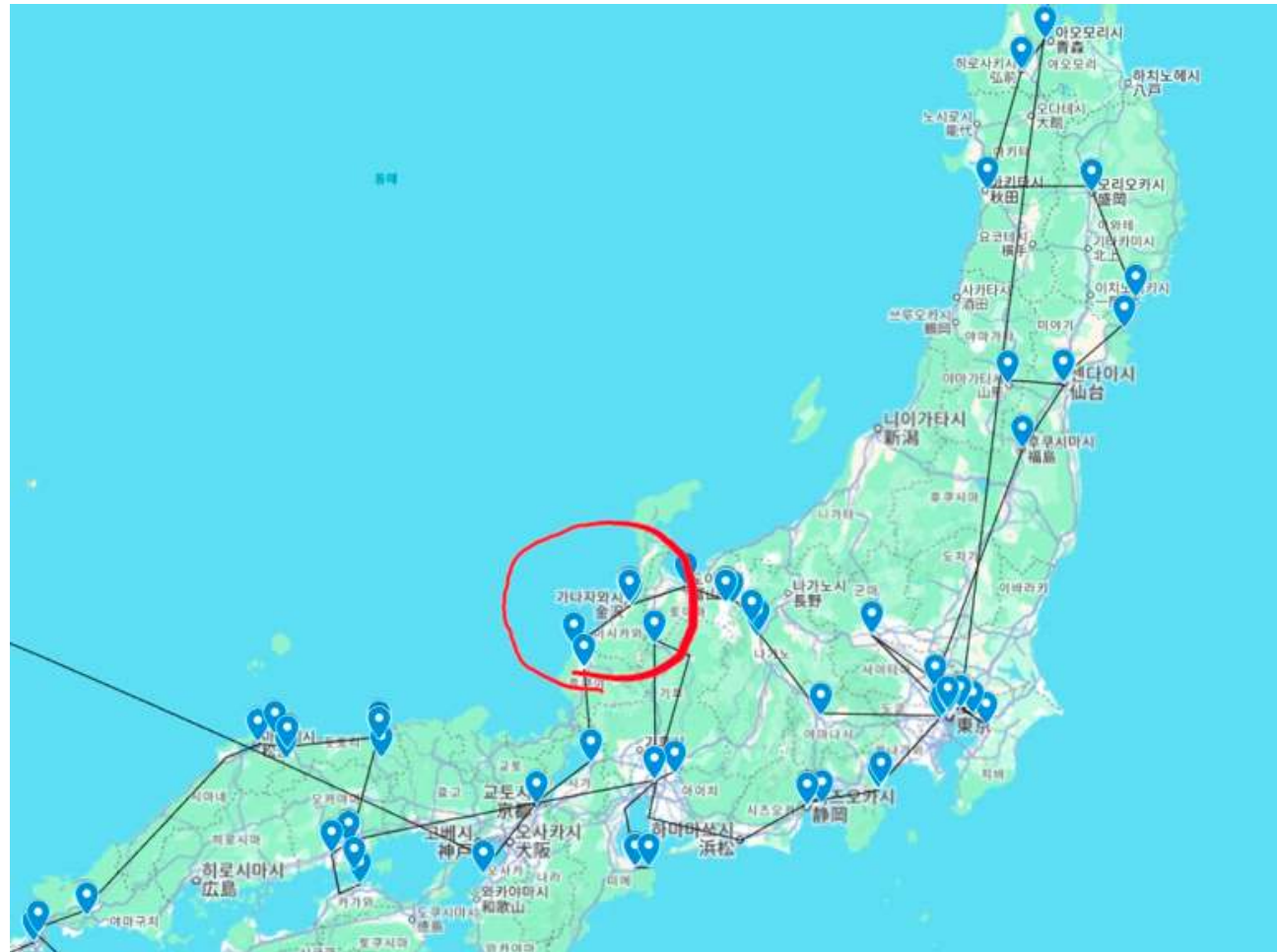
- 이시카와 현립도서관으로 한 이유
- 서울이나 타지에서 춘천 올 때, 소양댐, 닭갈비막국수, 호반 보러 등등.
혹시 춘천시립도서관 보러온다는 말 들은 적 있나요?

2021년 이전 신축. 잘 만든 도서관 호평.

매년 100만명 이상 방문. 5년 누적 5백만 돌파 예상.

지역사회의 지식정보서비스의 거점일 뿐 아니라, 관광의 명소로 대두.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Trip.com

내용

Trip.com 숙소 항공권 투어&티켓 항공 + 호텔 ... 앱 KRW 고객센터 예약 검색 로그인/회원가입

홈 > **트립 가이드** > 검색

여행지, 명소, 호텔 등으로 검색

검색 결과: "이시카와 현립도서관": 9개

전체(9)

명소(3)

트립 모먼트(6)

전국에서 방문자 수 1위] 아이와 ...

石川県立図書館

ゆう関西トラベ...

일본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불리...

金沢旅行 金沢観光

Sonoko_tabi

이시카와 현립 도서관.

石川県金沢市 金沢グルメ

みいの旅行日記

【이시카와】건축미가 돋보이는...

金沢旅行 石川観光

aiii_traveler

【이시카와・가나자와】아름다...

金沢観光

Sou_ひとり旅...

이시카와 현립 도서관.

石川県立図書館

Songway

도서관의 주요 연혁

1879년 이시카와 권업박물관 내 도서실로 최초 개관

1880년 밤10시까지 야간 개관 시작

1966년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인근으로 이전 개관

2019년 구 건물 노후화 및 내진 강도 부족 등에 따라 이전 신축 공사 착공

2021년 기존 도서관 폐관

2022년 7월16일 가나자와대학 공학부 부지로 신축 이전 및 재개관

영상 시청 (5분23초)

<https://youtu.be/qe831d4QjQc?si=thljVo1-0rMyOR-h>

기본적인 특징과 관련 연구들

1. 건물의 외형과 내부 구조
(책장 넘김 + 거대한 원형극장)



2. “책의 숲을 산책한다” + “생각지도 않은 책과의 만남”

신축 도서관의 기본이념을
실제로 가능하게끔
공간적으로 구현.



2. 경사로 통로 + 서가
(1~3층까지
'책의 숲 산책' 가능)

. 나중에 영상도 시청



3. 장르별 구분 (기존 십진분류기호 아닌 일상친화적 주제별 구분 12개)

“아이 키우기”, “일 관련”(「仕事を考える」),

“풍족한 생활”(「暮らしを広げる」), “자신을 표현하기”,

“문학을 접하다”, “신체를 움직이기”, “호기심을 품다”

“세계로 뛰어들기”(「世界に飛び出す」) “일본을 알기”

“삶의 방식에서 배우기” “책의 역사를 둘러보기”

“고향의 은혜와 문화의 향기 – 이시카와 컬렉션” 등

. 하위 분류 -- 약 700개의 세부 소주제. 사서들이 직접 구성하여 운영.

"일 관련" - 교양 쌓기 / 사회와 나의 돈을 생각한다(社会と私のお金を考える) 등

"아이 키우기" - 가끔은 쉬어가는 육아 / 아이 이해하기 / 다양한 육아방식

똑똑한 육아법 / 아이의 배움 / 아이와 놀기 / 부모와 아이의 건강 등

. 모두 책표지 보이게 배열 (단 최상층에는 전통적 분류기호 및 책등 배열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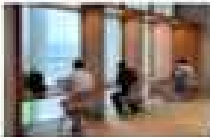
4. 명품 의자의 전시관

- 100종류 이상, '의자의 미술관' 으로도 불림
- 의자 매니아들의 성지
- 마스터피스 컬렉션

<https://www.library.pref.ishikawa.lg.jp/category/facilityguide/1054.html>

2.3 3층 가구분석

〈표 10〉 이사가와 현립도서관 3층 가구 분석

	아무타 데스크	기능성	영역성	모용성	이동성
E		●	●	●	○
	2층의 전망 높이에 붙어있는 큰 창문에 의해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개성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책상 공간.				
E	소파 테이블	기능성	영역성	모용성	이동성
		●	●	●	●
	가립타입의 부스와 책상과의 조합 가구. 책상의 뒷편은 개립타입의 부스인 등받이를 지탱하는 칸막이 형태의 벽으로 교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S	부스 좌석	기능성	영역성	모용성	이동성
		●	●	●	●
	칸막이 패널을 사용한 개관영역 분리 및 각 부스마다 설치된 조명, 수직적 개방감을 통해 사용하는 쾌적한 공간환경을 느끼며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S	Tsukun-bako	기능성	영역성	모용성	이동성
		●	●	●	●
	가만 구역을 침묵도르게 구성해주는 책상. 책상은 물론이고, 다양한 용도로서 잘 안에 방을 만들어내는, 사용자의 작은 사유 공간을 제공하는 가구.				
S	사일런스 톨	기능성	영역성	모용성	이동성
		●	●	●	●
	침묵공간과 분리된 조용한 환경에서의 칸막이의 기능을 하는 파티션이 융합된 형태의 책상 가구를 배치로 사용자의 시선이 차단되어 개인 독서로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				

		●	●	●	○
W		구조적인 벽면과 도어를 열어 구조적 공간분리로 하면서도 창살 디자인의 도어가 쾌적한 느낌에 물지 않도록 개방감을 줄여주었으며, 가벽이 주는 공간적 분리로서 사용자에게 안락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유적 공간을 경험하게 해준다.			
	형성 예그 채어	기능성	영역성	모용성	이동성
N		●	●	●	●
	동시무의 공간함과 모용성의 특징을 통틀어 삼한-북유럽의 그네 형태 의자, 선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사랑받는 명작 중 하나인 디자인 채어.				
W	원형 서기	기능성	영역성	모용성	이동성
		●	●	●	○
	1층 그레이의 홀에서부터 원형구조를 따라 3층으로 이어지는 수직 중첩 구조의 서기였다. 사람들의 재피리온 공간 유도를 위해 서기 칸막이를 적절히 두어 서기 될 것으로 계획한 좌석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N	원형 좌석	기능성	영역성	모용성	이동성
		●	●	●	○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원형 구조를 따라 설치된 책상구조로 인해 공간을 구조적으로 개방감을 다 느끼고, 작은 사용자에게 적합한 열람공간이다.				
N	서명과 코너	기능성	영역성	모용성	이동성
		●	●	●	●
	책의 12가지 테마로 관련하여 선택된 영상 자료를 보여주는 제형형 시청각 코너입니다. 사용자를 끌어들인 듯한 채널의 배열형태로 개성적 공간을 만들어주는 가구형태. 다양한 방향의 배치로 공간 구성에 가능한 모듈형태의 가구.				

5. 종래의 열람, 대출 기능에 머물지 않는 다채로운 시설기능

‘메이커스페이스’(モノづくり体験スペース) 및 ‘식문화 체험공간’

‘단단 광장’(だんだん広場) -
독서회 및 강연, 아동 대상 행사 등
지역주민의 교류 및 창조의 거점

정보통신기술(ICT) -
현내외의 타 관과 연계한 횡단검색 시스템
및 레퍼런스데이터베이스 정비

** 한국도 비슷하거나 앞서 있기도.



그 밖의 특징들

- 대화가 가능한 도서관
- 해먹, 개인실, 반^半개인실
- 음료수를 마시며 독서가능한 도서관
- 지역 전통문화와 연계 (상설 전시공간 외)



기존 연구들

上野佳奈子、仙田満、野村朋広, 2024,

『石川県立図書館の音環境の計画と調査』日本音響学会 建築音響研究会資料(AA2024-44).

免震研究推進機構, 2024, 『素晴らしい免震・制振建築 Vol. 石川県立図書館』

地域活性化センター, 2025, 『知と文化の拠点としての図書館再生～石川県立図書館の整備～』,

地方自治研究機構 先進事例調査研究(令和7年度).

배성혁, 2025, 체재형 공공도서관의 가구 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 이시카와 현립도서관을 중심으로 – 『청소년시설환경』, Vol.23 No.3

임태호, 2025,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이론에 나타난 통시적 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다영, 2025, 『소도시의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도서관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논문.

5. 제가 주목하는 특징

1) 이시카와현의 역사적 배경, 가가번(加賀藩)의 특징 – 거시적 요인

전근대/근세 :

에도시대에 **노토**국(能登国)(현 **이시카와현**) 및 **엣추**국(越中国)(현 **도야마현**)을 지배한 **마에다** 가문의 **번**

1664년 당시의 **고쿠다카**(石高, **막부** 등록 공식 생산량) 102만 5,000석,
막말 당시에는 **우치다카**(内高, 실제 영지 생산량) 133만 8,000석
에도 **막부** 쇼군가를 제외한 모든 번들 중 가장 높은 **고쿠다카**를 자랑.

메이지 유신 직후 실시된 인구조사에서는 106만명의 인구를 기록, 가장 인구가 많은 번.

번의 수도였던 **가나자와**는 **에도 시대** 당시에는 삼도(三都)라 불린
에도, **오사카**, **교토** 바로 다음가는 일본 전체에서 4번째로 큰 대도시.

막부 다음으로 큰 세력을 갖춘 가가번은 무력 대신 **문치주의**를 선택하여
학술과 공예와 예능을 장려하고 보급.

1) 이시카와현의 역사적 배경, 가가번(加賀藩)의 특징 – 거시적 요인

근대 :

- . 1890년대에 들어서자 신흥 실업가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산업혁명.

수출용 섬유산업과 이를 뒷받침한 섬유기계공업의 발전.
(에도 시대에 번이 장려한 공예진흥의 기반 -> 전국의 실력있는 장인들 모임 -> 가나자와 기계공업 발전.
'가라쿠리' 등 당시로서는 첨단적인 공예가 발달. 이후 섬유산업의 융성과 함께 자동기계 개발과 생산으로 이어짐)

- . 또한 19세기 후반 당시로서는 전위적인 건축물 건립, 제사공장의 기계 개발, 20세기의 워터 제트룸 등 고속혁신기계 제조업체 등 발전.

- . 에도 시대의 장인들의 기술과 노하우의 보존, 계승,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1876년에 이시카와현 권업시험장(일본 최초. 현 공업시험장) -> 이 안에 현립도서관의 전신 개설

1887년에는 가나자와 공업고등학교 설립(일본 최초. 현 현립공업고등학교, 미술공예의 근대화를 통해 지역 진흥에 공헌 목적. 그 이념은 가나자와 시립 미술공예대학으로 이어짐)

- . 1920년에는 가나자와 공업고급고등학교(현 가나자와대학 공학부)
- . 1924년에는 가나자와시 공과학교(현 시립 공업고등학교) 설립.

1) 이시카와현의 역사적 배경, 가가번(加賀藩)의 특징 - 거시적 요인

현대 :

· 2차대전 후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도쿄에 본사를 둔 기업의 지방 지점 기능 역할 = '지점 경제도시'로 성장, 혹은 단순한 생산기능만을 갖는 기업도시나 콤비나트 도시로 변모. 독자적인 문화나 자율적인 경제기반을 잃는 경향.

· 가나자와는 문화와 경제가 균형있게, 자생적 동력으로 내발적 발전을 이룬 곳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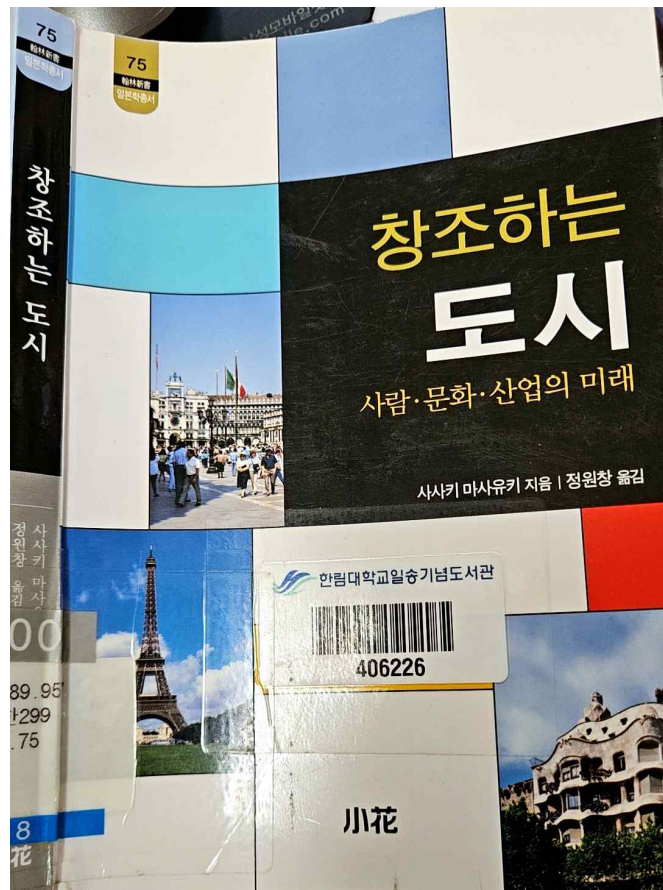
· 메이지 이래 약 1세기에 걸쳐 소비재산업인 섬유공업 + 생산재를 공급하는 섬유기계공업이 상호발전. 이를 기초로 전후 공작기계 및 식품 관련기계, 출판, 인쇄공업, 식품공업, 장치산업 등 발전, 연관성 유지.

· 이같은 도시경제의 내발적 발전력이 외래형 대규모 공업 개발 및 콤비나트 등의 유치를 결과적으로 억제, 산업구조 및 도시구조의 급격한 전환 회피. 이 점이 막번체제 이래의 독특한 전통산업과 전통적인 도시양식 및 자연환경을 유지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는 데 큰 역할.

· 정보산업 및 각종 서비스업 발전, 대학(가나자와대학, 미술공예대학, 공업대학 등 13개 대학)과 전문학교, 다수의 박물관 및 자료관 등의 학술문화 집적, 독자적이며 수준 높은 도시문화의 집적.

→ 창조도시 Creative City

문화와 창의성을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경제 가치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시



제3장 내발적 창조도시를 향한 가나자와 • 117

1. 기능인과 노점이 떠받치는 가나자와 거리 • 119
2. 역사도시 가나자와의 '모노즈쿠리' 전통 • 122
3. 내발적 발전이 이룩한 가나자와 경제의 특징 • 126
4. 문화적 생산도시로 • 130
5. 보존에서 창조로—가나자와의 문화행정 • 144
6. 내발적 창조도시, 가나자와의 주역들 • 155

일본 이시카와현의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 모델

외부 자본이나 대규모 공업 개발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고유의 문화, 역사, 인적 자원과 전통산업을 활용하여 스스로 성장을 이뤄낸 대표적인 지역 재생 성공 사례.

특히 이시카와현의 현청 소재지인 가나자와시의 '창조도시' 전략이 이 모델의 핵심으로 평가됨.

1. 전통과 현대의 공존 (보존 중심의 재생): 가나자와는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옛 무사 저택(부케야시끼)이나 게이샤 거리(히가시차야) 등 역사적 자산이 잘 보존. 외부 자본을 유치해 고층 빌딩을 짓는 대신, 이 전통 자산들을 관광 및 문화 공간으로 재정비
2. 독자적인 기술 및 지적 자산 활용: 가나자와의 금박(일본 전체 생산량의 99%), 구타니 도자기, 와지마 칠기 등 전통 공예 고도화.
3. 더불어 전통 직조기 기술에서 파생된 현대 기계산업(건설 기계, 탄소섬유 등)을 결합하여 내실 있는 제조 기반 정비.
4. 제도적 뒷받침: 일본 최초로 '전통환경보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가 단기적 개발 이익보다 장기적인 지역 정체성 유지를 우선시하는 강력한 정책 기조 유지

비교 항목	내발적 발전 (Endogenous Development)	외생적 발전 (Exogenous Development)
주요 개념	지역 내부의 자원과 주민의 주도성을 바탕으로 한 아래로부터의(Bottom-up) 발전	외부의 자본, 기술,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위로부터의(Top-down) 발전
발전 주체	지역 주민, 현지 기업, 지방 정부	중앙 정부, 대기업, 다국적 기업, 외국 자본
핵심 자원	지역의 전통문화, 고유 생태계, 향토 산업	외부의 대규모 자본, 첨단 기술, 거대 인프라
추진 방식	상향식 (지역의 필요에 의해 아래에서 시작)	하향식 (중앙의 계획에 따라 위에서 지시)
경제적 목적	지역 경제의 자립 및 지속 가능한 순환	신속한 산업화 및 단기적인 양적 성장
주요 장점	지역 특성 보존, 주민 참여율 높음, 환경 친화적	빠른 성장 속도, 대규모 인프라 구축 용이
주요 한계	자본·기술 부족으로 초기 성장이 느릴 수 있음	지역 소외, 환경 파괴, 외부 의존성 심화
대표 사례	로컬 푸드 운동, 전통 공예 활성화, 마을 공동체 사업	대규모 공업 단지 조성, 해외 자본 유치(FDI)

문화적 공공건축의 사례

21세기 미술관(2004)



미술관 전체를 둘러싼 유리벽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https://brunch.co.kr/@jjyjjong/7>

. 연간 방문객 수 : 평균 200만~250만 명 수준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에서 가장 유명한 공간. 이 공간은 어느 한 작가의 작품이었으며, 공간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정말 물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https://brunch.co.kr/@jjyjjong/7>

가나자와 우미미라이 도서관(2011)



<https://note.com/norishirotaro/n/n7b52eb724397?hl=ko>

. 도서관 수상이력

- [受賞] H27.5 [日本建築学会作品選奨（一般社団法人 日本建築学会）](#)
- [受賞] H26.1 [インテリア賞2014：公共空間（contract）](#)
- [受賞] H25.9 [アジア太平洋デザイン・建築賞 イメージギャラリー（国際インテリアデザイン協会）（2013）](#)
- [受賞] H25.7 [日本図書館協会建築賞（社団法人 日本図書館協会）](#)
- [受賞] H25.7 [BCS賞（一般社団法人 日本建設業連合会）](#)
- [受賞] H25.2 [日本建築家協会賞（公益社団法人 日本建築家協会）](#)
- [受賞] H24.10 [中部建築賞 入賞（中部建築賞協議会）](#)
- [受賞] H24.10 [グッドデザイン賞（公益財団法人 日本デザイン振興会）](#)
- [受賞] H24.7 [石川建築賞 入賞（一般社団法人 石川県建築士会）](#)
- [受賞] H24.1 [金沢都市美文化賞（金沢都市美実行委員会）](#)
- [評価] H26.3 [世界の魅力的な図書館 ベスト20（米国旅行ガイド・フォダーズ）（2014）](#)
- [評価] H25.9 [世界のスーパーライブラリー ベスト4（BBC英国公共放送局による番組での紹介）\(2013\)](#)
- [評価] H25.8 [世界の近未来的図書館 ベスト10（OECD通信教育や単位取得に関する情報提供をしている米国データベースネットサイト）（2013）](#)
- [評価] H24.4 [世界の最も美しい公共図書館 ベスト25（米国ネットサイト・フレイバーピル）（2012）](#)

. 연간 입장자 수 : 약 33만명 (2023년 기준)

1) 이시카와현의 역사적 배경, 가가번(加賀藩)의 특징 - 거시적 요인

- 백만석 = 경제력, 여유
- 문화 예술에 주력
- 겐로쿠엔, 문학, 공예(금박 등), 기계공업, 섬유, 식품, 디자인 등
- 내발적 발전(독자적 산업혁명)
- 창조도시('문화적 생산')

=> 현민들의 자부심 + 문화정책 관련 이해도 + 기존 성공사례

=> 현립도서관 신축 지지 (백만석 비블리움)

2) 도서관 건물을 넘어서는 그 지역 경관의 매력 – 중범위적 요인

· 버스정류장

·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통로

· 길 건너편의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사진 열람)

3) 책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쇼케이스의 유혹 – 미시적, 결정적 요인

- 책 한권 한권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키는
매혹적인 전시방식

- 도서관에서 책을 접하지 않는다면 ?

- 일본적 장인정신 ?

(사진 열람 및 영상 시청)

사서의 역할 확대?

전통적인 도서 관리

+ 12개 주제 분류법 (700개 소수제 분류, 관리)

+ 문제해결형 시민 상담/협조

+ 쇼케이스 디자인 (기획, 제작?)

6. 마무리

- * 도입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 시, 도 차원에서 생각할 일
 - cf) 복수의 시립도서관, 도립도서관,
전문도서관(음악, 미술도서관)
- * AI 시대의 인문교육과 도서관(혹은 여타 지역공간과의 연계)